

세계정예선수와 한국적인 스타일로 당신을 코대한다.

임핑다아너스타 컨트리 클럽

● 우천시 9홀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flyrassy.co.kr 080-320-7700



수원 4년만에 K-리그 챔피언 탈환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K-리그 2008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수원 삼성이 FC 서울을 2-1로 누르고 4년만에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수원 차범근 감독과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한국시간) 열린 선더랜드와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출전한 맨유의 박지성이 득점 기회를 놓친 후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박지성
잘 뛰었는데**

‘산소 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섯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기대했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박지성은 7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선더랜드와 2008~2009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후반 13분 카를로스 테베스로 교체될 때까지 58분간 뛰었다.

**프리미어리그 선더랜드전
5경기 연속 출전...득점 실패**

이로써 박지성은 지난달 9일 아스널과 정규리그 12라운드에서 시작으로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이자 시즌 9번째 선발로 나서 주전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지난 9월21일 첼시와 5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이후 무탈 보름 넘게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맨유는 이날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네마냐 비디치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선더랜드를 1-0으로 간신히 이겼다.

앞서 벌어진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사비 알론소와 요시 베나운, 스티븐 제라드의 릴레이골로 블랙번을 3-1로 꺾고 선두를 지켰고 첼시와 아스널도 볼턴 원더러스와 위건 애슬레틱을 각각 2-0과 1-0으로 제압하는 등 ‘빅4’가 모두 승점 3점을 챙겼다.

한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이영표(31·도르트문트)는 지난 6일 밤 빌레펠트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교체 없이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 소속팀은 득점 없이 비겼다. /연합뉴스



**‘比 국민 주먹’ 파퀴아오
美 델라호야에 TKO 승**

‘필리핀의 국민 주먹’ 매니 파퀴아오(30·필리핀)가 ‘골든 보이’ 오스카 델라호야(35·미국) 마저 무너뜨리고 아시아 복싱의 위력을 전 세계에 떨쳤다.(사진)

파퀴아오는 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가든에서 열린 델라호야와 웰터급(66.68kg) 본타이틀전(12R)에서 8회 TKO승을 거뒀다.

파퀴아오는 이틀복식으로 델라 호야의 주먹을 피했고, 7회 중반부터 델라호야를 링 쪽으로 몰아넣었다. 파퀴아오의 왼손 쪽에 이은 스트레이트가 델라호야의 얼굴에 터지자 왼손 눈 아래가 부풀어오른 델라호야는 양손 가드를 올린 채 도망치기에 바빴다.

8회에 파퀴아오의 우세가 더 분명해졌다. 델라호야는 8회초 반격을 시도했지만 정타는 한방도 작렬하지 못한 채 오히려 파퀴아오의 역공에 걸려 그로기 상태가 되자마자 파퀴아오의 역공에 걸려 그로기 상태가 되었다. 8회가 끝나고서 델라호야는 경기를 지속할 의지를 잃어버렸고, 결국 9회가 시작되기 전 가관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차붐 축구’ 부활...하늘도 축하 눈 세레

용병 에두 선제골, 송종국 결승골 힘입어
‘귀네슈 돌풍’ 서울 2-1 꺾고 우승 헝가래

주전 부상 악재 털고
템포축구 승부 주효



2008 챔피언 결정 2차전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화끈한 골 폭풍을 앞세워 ‘귀네슈 돌풍’을 잠재우고 4년 만에 K-리그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전반 11분 에두의 선제골과 전반 36분 송종국의 결승골에 힘입어 정조국의 페널티킥(전반 25분)으로 한 골을 만회한 FC 서울을 2-1로 물리쳤다.

이날 승리로 지난 3일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1-1로 비겼던 수원은 종합상적 1승1무로 8년 만에 K-리그 정상에 노린 서울의 열망을 꺾고, 2004년 이후 4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우승상금은 3억원.

지난 1998년과 1999년 K-리그 2연패를 장식한 수원은 차범근 감독 부임 첫해인 2004년과 올해 우승으로 4개의 별을 가슴에 새기게 됐다. 또 올해 삼성하우젠과 정규리그 우승을 모두 휩쓸면서 K-리그 명문 구단으로서 자존심을 되살렸다.

역대 K-리그 챔피언결정전 최다관객인 4만1천44명이 들어찬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초반부터 치열한 미드필드 싸움으로 달아올랐다. 값진 선제골은 홈팀 수원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전반 11분 조원희가 미드필드 중앙에서 차출린 프리킥이 수비벽에 맞고 흘렀고,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페널티지역 왼쪽에 있던 에두가 강력한 왼발 슈트로 서울의 오른쪽 골문을 강하게 흔들었다.

서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공격에 가담했던 수원 수비수들이 전진해 있던 전반 25분 서울의 수비통 미드필더 김한운이 후방에서 전방을 향해 한 번에 통패스를 넣어줬고, 볼을 받은 이청용이 쇄도하면서 달려 나온 이운재와 충돌했다. 순간 주심이 휘슬을 불며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정조국이 침착하게 이운재를 숙이고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울 수비진들은 기동력이 뛰어난 수원의 ‘브라질 특급’ 에두의 돌파에 또 한 번 무릎을 꿇었다.

전반 36분 에두가 아디를 제치고 오른쪽 페널티지역 돌파에 성공하는 순간 서울의 중앙 수비수 김치곤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송종국의 슈팅이 김호준의 선방에 막혀 흘러나왔지만 송종국이 재빠르게 다시 왼발로 공을 차넣어 승부에 쐐기를 박는 결승골을 만들었다.

후반에는 ‘거미손’ 이운재의 선방이 빛났다. 후반 14분 수원 수비진을 따돌린 서울의 이청용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마음 놓고 슈트를 때렸지만 길목을 지킨 이운재가 가랑이 사이로 파고드는 볼을 막아내 실점 위기를 넘겼다. 이운재는 후반 28분에도 공격수와 수비수들이 얽힌 가운데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날아온 아디의 기습적인 땅볼 슈트를 몸을 날려 막아내 위기를 벗어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수원 차범근 감독 작전 승리

‘차붐축구’가 이번 시즌 두 개의 우승컵을 잇달아 차지해 부활의 꽃을 피웠다.

차범근(55) 감독은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둬 종합상적 1승1무로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2004년 이후 4년 만에 되찾은 K-리그 우승컵이다.

차 감독은 지난 10월 삼성하우젠에서도 우승하면서 정규리그 챔피언과 더불어 2관왕 달성에 성공, 지난 2004년 10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이후 최고의 한 해를 구가했다.

차 감독은 한국 축구 최고의 스트라이커 출신 사령탑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98골을 터뜨리며 동양인 최다 득점을 일궈냈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A매치에서도 121경기에서 55골을 터뜨린 부동의 골잡이였다. 하지만 사령탑으로서 차 감독의 활약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1991년 울산 현대 호랑이 축구단 감독으로 K-리그에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4시즌 동안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또 1998년 프랑스로 이적하면서 중도에 결별되는 수모를 당했고, 그해 8월 월간지를 통해 ‘K-리그 승부조작설’을 제기했다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5년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중국 프로축구 무대로 떠나야 했던 좌절의 시기도 있었다.

차 감독은 지난 2004년 수원 사령탑으로 복귀한 이후 빠른 공격을 앞세운 ‘템포축구’로 그해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따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2005년 초반 슈퍼컵과 A3 대회, 컵대회와 까지 무려 4개 대회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세우면서 ‘우승제조기’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정규리그에서 부상 악재에 시달리며 팀의 하위권 추락을 막지 못했다. 차 감독은 2006년 성남과 챔피언결정전에서 패하면서 또 한 번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다.

지난해에도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지만 ‘파리안 열풍’에 가로막혀 우승 문턱에서 좌절에 맞닥뜨린 차 감독은 이번 시즌에도 불어닥친 부상 악재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었다.

에두, 2차전 활약만 보면 MVP 감

수원 삼성이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우승을 차지하는데 일등공신은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두(27)였다.

에두는 FC서울과 K-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전반 11분 선제골을 넣는 등 만점 활약을 펼치며 2-1 승리와 함께 우승컵을 수원에 안겼다. 배기종과 투톱으로 선발 출전한 에두는 풀타임을 뛰었다. 1-1로 맞선 전반 36분 결승골로 이어진 송종국의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것도 에두였다. 에두는 페널티지역 내 오른쪽 쪽을 파고들다 서울 수비수 김치곤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팀 당 한 명밖에 추천할 수 없는 시즌 최우수선수(MVP) 후보를 수원에는 이미 골키퍼 이운재로 결정한

상황이었지만 이날 활약만 놓고 보면 에두는 단연 MVP 감이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05에서 뛰던 에두는 지난해 초 수원 유니폼을 입었다. 마인츠로 이적하기 전에는 역시 분데스리가의 보훈에서 뛰었다. 에두는 K-리그 데뷔 첫 해 34경기에서 7골4도움을 올렸다. 기록상으로는 기대 이하일지 모르지만 나드슨, 안정환 등이 재물을 못해 준 상황에서 그는 서동현, 신영록 등 젊은 공격수들과 함께 힘있게 팀의 전방을 책임졌다.

올 시즌에는 챔피언결정전 2차전까지 38경기를 뛰면서 16골7도움(K-리그 13골5도움)을 올렸다. 팀 내 최다 득점, 최다 도움이다.

이운재 “MVP 꼭 타고 싶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우승 트로피로 짐을 덜어낸 것 같다. MVP 트로피도 꼭 타고 싶다.”

프로축구 최고의 수문장으로 손꼽히는 ‘거미손’ 이운재(35·수원)가 K-리그 최초의 골키퍼 MVP를 향한 간절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운재는 K-리그 2008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두 차례 멋진 선방으로 팀의 승리에 도움을 주고 나서 “우승하게 돼 기쁘다. 은퇴하는 날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올해 MVP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운재는 지난 5일 프로연맹이 선정한 MVP 후보에 데안(서울), 박동혁(울산), 이근호(대구), 정성훈(부산)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날 수원의 우승으로 이운재의 MVP 수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운재는 “1년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시즌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다”며 “오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그 무거움이 조금이나마 없어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아시안컵 을주파문으로 1년간 대표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선수생활에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운재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묵묵히 그라운드를 지켰다. /연합뉴스